

# 『주역(周易)』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 - 건괘(乾卦) · 곤괘(坤卦)를 중심으로 -

신성수 · 이현구  
(동방대학원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주역』의 기본원리인 태극음양론을 융(C. G. Jung 1875~1961)의 분석심리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극합일론(對極合一論)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역』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해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역』이 만들어지게 된 연원을 두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우선 복희씨(伏羲氏)에서 비롯되어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에 의해 64괘의 패사와 효사가 이루어져 경문(經文)이 완성되었고, 이후 공자(孔子)에 의해 해설전인 십익(十翼)이 첨가되었다고 하는 전통적인 입장이 있다. 그리고 주(周)나라 초기에 하(夏)나라 · 은(殷)나라 때의 복관(卜官; 祭司長)들에 의해 이루어진 복사(卜辭; 占辭)들을 수집하여 점(占)을 하게 된 사실 관계와 그 결과인 점사(占辭)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주역』 경문을 이루게 된 기초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1)</sup> 후자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 신성수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주역철학 전공),

이현구 :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金珍根, 「새로운 周易觀 定立을 위한 研究 - 전통 주역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많은 복판들의 작업에 그들의 정신적인 면들이 개입되었을 것이고, 『주역』 경문에 그것들이 담겨질 것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주역』이 점서에 연원을 두어 많은 복판들의 정신적 작업의 결과로서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주역』은 융이 말하는 ‘집단무의식’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양에서 분석심리학의 초석을 이룬 융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와 그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면서 정신의 작용을 분석하였다. 융은 환자의 환시(幻視)를 보면서 그것들이 신화(神話)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신화와 더불어 민담(民譚) 등에는 인간의 심성이 반영되어 있고, 각 개인에게는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표상(表象; image)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정신적인 작용들은 인간의 의식을 이끌고 가는 어떤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그 목적의 중심에는 ‘대극적인 요소들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인 삶의 실현’이 있다. 이것은 의식의 일방성(one-sidedness)으로 인하여 상실된 정신적인 균형의 복구와도 통한다.

융의 심리적인 작업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을 때, 연금술(鍊金術)의 과정이 그가 공부해온 내용과 합치됨을 발견하였고, 융은 연금술을 빌어 그의 이론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리하르트 빌헬름(Richard Wilhelm, 1870 ~1930)의 도움으로 얻은 중국의 도가(道家) 서적인 『태을금화종지(太乙金華宗旨)』를 통하여 동양의 연금술도 이와 동일함을 알게 된다. 동시에 융은 리하르트 빌헬름의 『주역』(번역본<sup>2)</sup>)의 서문을 부탁받아 쓴다. 그는 이미 『주역』에 심취하여 스스로 점을 즐겨 쳐보기도 하였고, 이를 심화시켜 ‘동시성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기도 한다. 즉, 『주역』에는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흐르고 있고 점을 치는 사람과 점의 대상 사이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고

「易經」·「易傳」의 분석을 통하여 -, 『周易의 現代的 照明』(한국주역학회 편, 범양사 출판부, 1992), pp.27-74; 신성수, 「卜·筮와 『易』의 關係에 관한 研究」, 『語文研究』 39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pp.389-414; 신성수, 「『주역』의 관점에서 본 초월과 실존 - 파국과 희망의 변주」, 『인문학 연구』 2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pp.60-65 참조.

2) Wilhelm, Richard and Cary F. Baynes,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옴은 『주역』을 무의식적 정신의 작용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주역』과 분석심리학은 모두 인간의 정신이 중심이 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역』을 분석심리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주역』에 내재된 정신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분석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확충(amplification)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괘상(卦象)과 괘효사(卦爻辭)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의 상징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투영되는 보다 살아있는 내용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삶 안에서 살려낼 수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옴의 동시성 원리는 서양의 과학주의에 물들어있는 현대 동양인의 사유 구조에서 그들이 잊고 있는 고유의 사상과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옴은 비인과적 동시성 원리를 주장하면서 인과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동양의 보물인 정신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즉, 옴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정신의 가치를 되찾았다고 할 수 있다.

『주역』과 분석심리학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옴의 ‘동시성 이론’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은봉은 먼저 의식의 시간과 무의식의 시간에 대한 비교를 한다. 전자를 인과율과 연결 짓고 후자에서 옴의 비인과적 동시성의 원리의 출발점을 찾는다. 그러면서 『주역』에 포함된 점술(占術)을 동시성 원리의 예로 보았다.<sup>3)</sup> 이어 그는 본격적으로 『주역』과 옴의 분석심리학을 비교하면서 『주역』을 하나의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입장에서 접근해보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주역』의 64괘 순서에 입각한 해석을 하면서 『주역』자체의 논리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역』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그 목표로 둔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음양의 조화를 통하여 도(道)나 태극(太極)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았다.<sup>4)</sup> 또한 그는 『주역』을 꿈과 같은 상징성이 풍부한 언어로 보면서 『주역』을 지혜를 얻기 위한 도구로 보았으며, 심층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그 중개적 도구를 분석심리학

3) 이은봉, 「同時성과 時間의 問題」, 『宗敎學 研究』4권, (宗敎學研究會, 1981), pp.23-41.

4) 이은봉, 「『周易』의 同時性 原理와 理想」, 『宗敎學 研究』3권, (宗敎學研究會, 1980), pp.3-29.

의 동시성 이론으로 보았다. 그는 동양의 도를 분석심리학의 자기(Self)로 보았고, 도를 실현하는 것을 융 심리학의 개성화 과정으로 연결시켰다. 그 실제적 방법으로 분석심리학의 확충(amplification)을 들었다.<sup>5)</sup>

이창일은 『주역』을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이란 관점에서 보았다. 그는 고학적인 발견물인 『백서주역(帛書周易)』의 분석을 통하여 공자에 의한 의리역의 출현이 두 관점이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울러 그는 『주역』의 이러한 두 관점을 서양에서의 인과율과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시성 원리와 대비시킨다. 그러므로 그는 『주역』의 역사 속에서 인과율에 대한 상보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성 원리의 출현이 『주역』의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이라고 보았다.<sup>6)</sup> 요시무라 미카(吉村美香)는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주역』과 노장 사상을 이해하였다. 그 역시 동시성 이론에 입각해서 『주역』을 보았는데, 특히 『주역』의 전통적 관념인 천도와 인도의 조화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점(占)을 도(道)의 한 가지 표현으로 보았고, 이런 점에서 『주역』을 점으로 이해한 융의 동시성 이론에 주목한다. 그는 동시성 원리를 도 즉 자연의 질서(天道)와 인간의 질서(人道)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원리로 인식한다.<sup>7)</sup>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주역』과 융 심리학을 연결시키는데 있어 주로 ‘동시성 이론’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역』의 근본 원리인 태극음양론과 융 심리학의 바탕인 ‘대극의 합일’ 이론을 비교하여, 두 영역에 대한 근본적 입장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주역』의 연원(淵源)을 정신사적 배경에서 재조명해 보고, 제3장에서는 융 심리학과 『주역』의 상관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주역』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고, 이어 제5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5) 이은봉, 『『周易』과 同時性 理論』, 『周易研究』1권, (韓國周易學會, 1996), pp.115-137.

6) 이창일, 「주술과 『周易』: 占筮易과 義理易의 통합적 이해의 역사」, 『서강인문논총』 23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p.115-137.

7) 요시무라 미카, 「C.G. 융의 동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II. 『주역』의 연원과 정신사적 배경

중국 고대 점술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卜)과 서(筮)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역』은 동양철학의 근원으로서 오랜 역사적 연원을 두고 형성되었다. 복(卜)과 서(筮) 그리고 역(易)은 거의 동시대에 형성된 고대 정신문화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고고학상의 발견에 의하면, 사실상 은나라 사람은 대량의 귀갑(龜甲)·수골(獸骨)을 이용해서 점을 쳤을 뿐만 아니라 서(筮)를 사용할 줄도 알았고, 팔괘(八卦)를 연역(演繹)할 줄도 알았다.<sup>9)</sup> 당시부터 점술의 두 방법이 공존했다는 사실은 점술의 용도와 이용자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양자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시행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주나라 이전에는 복(卜)에 우월적인 지위가 있었음에는 틀림없다고 본다.<sup>10)</sup>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대사회부터 다양한 점의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었고, 동물의 뼈로 점을 치는 복(卜)을 중시한 사실은 신(神)에게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제물인 동물이 더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고대인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나라 이후에는 서(筮)가 점술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시대적 이유가 있을 법하다. 그 중 납득할만한 근거는 서(筮)의 재료인 시초(蓍草)는 구하기 쉽고 복(卜)의 재료인 동물인 거북은 구하기가 어려워졌으며, 또한 특히 소는 농업 국가인 주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가축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복(卜)에서 서(筮)로의 이동이 되면서 점서(占筮)의 교재인 『역(易)』의 자리가 생기게 된다.<sup>11)</sup>

『역(易)』의 괘획(卦劃)과 괘효사(卦爻辭)는 본래 점을 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sup>12)</sup> 고대문화의 흔적들을 추적해볼 때, 『역(易)』은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비롯되었을 것이다. 또한 『역(易)』은 고대인의 생활 모든 면에 중요하게

8) 신성수, 「卜·筮와 『易』의 關係에 관한 研究」, p. 409.

9) 鳴浩坤·潘悠·梁東淑 역, 『중국갑골학사』(서울: 東文選, 2002), pp.134-135  
참조. 신성수, 「卜·筮와 『易』의 關係에 관한 研究」, p.408.

10) 신성수, 「卜·筮와 『易』의 關係에 관한 研究」, p.408.

11) 신성수, 「卜·筮와 『易』의 關係에 관한 研究」, pp.406-409 참조.

12) 寥名春·康學偉·梁韋弦,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9), p.18.

연관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책으로서의 『역(易)』은 어느 특정된 한 시대에 한정되어 활용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다수의 복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실이 『역(易)』이라 한다면 거기에는 인간의 정신적인 요소가 보태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지 않고 정신의 관점에서 삶으로 다시 살려내는 과정이 『역(易)』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상징을 부여하고 만들어내는 정신 능력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 그들만의 고유한 『역(易)』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易)』은 연산역(連山易), 귀장역(歸藏易) 그리고 주역(周易)의 세 부류로 전해진다. 주(周)나라의 직제를 규정한 『주례(周禮)』에 삼역(三易)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특히 점복의 총괄책임자인 태복(大卜) 밑에 서인(筮人)을 두어 삼역(三易)을 관장하도록 하였다는 기록<sup>13)</sup>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그런데 연산역과 귀장역 그리고 주역의 상관관계에도 당대의 정신이 투영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역』은 그 생성 과정에 연산역·귀장역과 함께 전해지다가 동주(東周) 이후에는 『주역』만이 전해졌다고 한다.<sup>15)</sup> 역(易)은 고대인의 생활과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13) 『周禮』「春官宗伯 下」: “大卜, 掌三兆之法 一曰玉兆 二曰瓦兆 三曰原兆. … 掌三易之法 一曰連山 二曰歸藏 三曰周易. … 掌三夢之法 一曰致夢 二曰觴夢 三曰咸陟. … 筮人, 掌三易 以辨九筮之名. 一曰連山 二曰歸藏 三曰周易 九筮之名 一曰巫更 二曰巫咸 三曰巫式 四曰巫目 五曰巫易 六曰巫比 七曰巫祠 八曰巫參 九曰巫環, 以辨吉凶. 凡國之大事 先筮而後卜. 上春相筮. 凡國事共筮.” 『十三經注疏 周禮』(清·嘉慶二十年重刊宋本, 新文豐出版公司 印行), pp.369-376; 지재화·이준령 역, 『주례』(서울: 자유문고, 2002), pp.283-290 참조.

14) 신성수, 「卜·筮와 『易』의 關係에 관한 研究」, pp.392-396 참조.

15) 高懷民, 송실대 동양철학 연구회 번역, 『중국 고대 역학사』(서울: 송실대 출판부, 1990), p.27. 연산역·귀장역·주역의 관계는 오늘날 중국에서 발굴되어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결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백서본과 죽간본 등의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실전(失傳)되었다고 알려진 연산역과 귀장역의 추정도 가능한 상황에 있다. 예컨대, 김교빈, 「馬王堆 帛書의 연구경향 검토 -『주역』·『노자』·『황제서』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17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pp.133-167; 김성기, 「歸藏易의 出土와 易學史的 意義」, 『동양철학연구』 제4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6), pp.197-224; 김태완, 「백서 『주역』 「요」 편의 분석적 고찰」, 『시대와

할 수 있다. 이 세 역은 정신사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발달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각각의 역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역』의 다른 두 역과의 큰 차이점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제일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괘는 역의 기본 원리인 음양을 대표하는 괘로서 역의 전체를 아우른다. 음양은 『주역』 전반에 걸친 핵심 사상이었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왜 『주역』의 시대에 와서는 건·곤괘를 제일 앞에 두었을까? 아마도 각 역의 이름에서 이를 상징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라의 연산역은 산(山)이 이어졌다는 뜻으로 64괘 가운데 간괘(艮卦)를 머릿괘로 두었고, 은나라의 귀장역은 모든 것이 땅에 잠장되어 있다는 이치에서 곤괘(坤卦)를 머릿괘로 두었으며, 주나라의 『주역』은 하늘의 이치에서 출발하여 건괘(乾卦)를 머릿괘로 두고 있다.<sup>16)</sup> 모두 중첩되는 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언가 강조하는 인상을 준다.

연산역의 산(山)은 자연의 상태를 상징하고, 귀장역의 곤(坤)은 땅이라는 인간의 영역을 나타낸다. 이것은 인간 의식의 발달과도 맞물려질 수 있다. 산은 거인이나 난장이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구별이 안 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근본 물질이 나오는 곳이다.<sup>17)</sup> 즉, 산은 상징적으로 아직은 인간의 의식 상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정신적 미분화의 공간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소우주로서의 인간은 땅과 우주 안에서 자신을 상징화한다.<sup>18)</sup> 또한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신은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땅의 네 모서리에서 구한 먼지로 만들었다고 한다.<sup>19)</sup> 따라서 땅은 인간의 실존(實存)과 깊게 연결된다. 여기에서 산(간괘)

철학』 제17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pp.169-207; 정병석, 「聖人之書와 卜筮之書의 사이 - 새로운 出土資料를 통해 본 『周易』의 形成 問題 -, 『동양철학 연구』 제42집, (동양철학연구회, 2005), pp.137-162 등 참조. 이 논문에서는 연산역과 귀장역 그리고 주역의 의의를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김석진, 『대산 주역 강의 1』, (서울, 한길사, 1999), pp.34-35.

17) Ad de Vries,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Amsterdam: Elsevier Ltd., 2004), p.395.

18) C. G. Jung, *Alchemical Studies* (C.W. 1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92.

이나 땅(곤괘)보다 하늘(건괘)을 중시했던 『주역』 당시 사람들의 태도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즉, 이제는 정신적인 면의 고양을 상징하는 하늘로 귀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귀장역과 주역의 처음인 곤괘에서 건괘로의 이행은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대극의 요소가 처음으로 나오는 음양의 변화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역』의 핵심인 태극의 실천적 내용을 드러낸 것이기도 할 것이다.

역의 이런 흐름을 상징적인 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듬어 볼 수 있다. 산은 옴팔로스(Omphalos)로 세계의 배꼽이자 중심이고 풍요를 나타낸다.<sup>20)</sup> 즉, 정신이 생겨난 모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활동도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우리의 의식은 처음부터 있어왔던 것이 아니라 산으로 표상되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의 발달은 하나의 고정된 장소에서 문화의 꽃을 피우듯 그것이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실제적 공간이 필요하다. 땅은 지상적인 인간과 연결이 되고 물질적 삶의 부양자를 상징한다.<sup>21)</sup> 이어서 하늘은 정신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최후의 영역이다. 구름은 신의 복장이요 푸른 하늘은 베일에 감춘 신의 얼굴이듯이 하늘은 신(神)을 상징한다.<sup>22)</sup>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영혼이 안주하는 곳은 하늘로 상징되어 왔다. 비록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정신은 혼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는 믿음은 『주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에 담긴 뜻을 달리 표현하면, 역(易)이 고대인의 실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점(占)에서 연원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이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정신적인 면으로의 변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역의 변화와 흐름은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 답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내용들의 상승과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건괘와 곤괘는 이런 흐름에서 정신인 하늘과 물질인 땅의 상호 교류를 뜻하는 중요한 두 축을 상징한다.

19) C. G. Jung, *Mysterium Coniunctionis* (C.W.1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386.

20) Ad de Vries,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p.394.

21) Ad de Vries,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p.189.

22) Ad de Vries,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p.293.

『주역』 「계사전」에 “건곤은 역의 문이구나! 건은 양의 물건이고 곤은 음의 물건이니, 음양이 덕을 합해서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체가 있다.”<sup>23)</sup>고 하였다. 건곤은 음양을 대표하듯이 역의 시작이 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건과 곤이 열을 이룸에 역이 그 가운데 서니, 건과 곤이 훼손되면 역을 볼 수 없고, 역을 볼 수 없으면 건과 곤이 혹 거의 쉴 것이다.”<sup>24)</sup>라고 하여 역과 건곤괘의 긴밀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제인 ‘대극의 합일’의 핵심 요소인 음과 양, 즉 정신과 물질에 대한 표현도 드러난다. “형체의 위에 있는 것을 도라 하고, 형체의 아래에 있는 것을 그릇이라 한다.”<sup>25)</sup>라고 하여, 건(乾)을 정신적인 차원의 도로 보고 곤(坤)을 물질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건의 도는 남자를 이루고 곤의 도는 여자를 이루니, 건은 크게 시작함을 주관하고, 곤은 물건을 완성하는 작용을 한다.”<sup>26)</sup> 여기에서도 건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시작함의 정신적인 면과 물건을 완성하는 물질적인 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주역』을 정신과 물질로 비유하는 관점은 초월과 실존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접근법과 이를 의리역과 상수역으로 구분하는 방법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은 세상의 변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파국적 상황에서 실존 문제를 절감하게 된다. 이런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승화시키기 위하여 초월의식을 추구한다.<sup>27)</sup> 여기에서 실존은 외부 상황인 물질과 연관이 되고, 초월은 내면 중심인 정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역』에서의 실존과 초월, 다시 말하면 파국과 희망은 동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한편, 『주역』을 점서(占書)로만 보거나, 혹은 철학적인 내용으

23) 『주역』 「계사하전」 제6장 : “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이 논문에서 『주역』 원전은 학민문화사에서 1998년에 발간한 『周易附諺解』 사책(四冊)을 참고하였다. 『주역』은 널리 알려져 있는 고전이므로 이하에서는 원문인용출처표기를 생략하고자 한다.

24) 『주역』 「계사상전」 제12장 : “乾坤成列而易立乎其中矣, 乾坤毀則無以見易, 易不可見則乾坤或幾乎息矣.”

25) 『주역』 「계사상전」 제12장 :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26) 『주역』 「계사상전」 제1장 :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

27) 신성수, 「주역의 관점에서 본 초월과 실존」, p.59.

28) 신성수, 「주역의 관점에서 본 초월과 실존」, p.81.

로 이해하는 의리역으로만 보아 단면화시키는 것은 『주역』의 생명력을 제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이란 인간의 합리적 사유 방식과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 방식의 통합이다.<sup>29)</sup> 여기에서 합리적이란 과학의 바탕이 되는 물질을 말하고, 합리적이지 않음이란 인간의 핵심인 정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아가 융은 근대 세계의 상보적인 측면 곧 인과율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인 ‘동시성 원리’를 제창하는데, 이것은 『주역』의 역사 속에서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점서역은 현실인 물질로서의 음을 상징하고, 의리역은 이상인 정신으로서의 양을 상징할 수 있다. 이 둘의 통합은 주역의 핵심 사상이다.

### III. 융(C. G. Jung)의 심리학과 『주역』의 상관성

#### 1. 융 심리학의 기본이론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인격 또한 그 무의식적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발전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게 된다.”<sup>31)</sup>

융이 죽기 바로 전 해에 탈고한 그의 자서전 프롤로그 첫머리에 실린 이 말처럼 융 심리학의 기초는 무의식(無意識)에 있다. 무의식은 감지되지 않는 모든 정신적 사건의 총합 즉,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을 구분하는 문턱을 넘어서기 위한 기능의 충분한 강도를 지니지 않는 모든 정신적 내용물을 포함한다. 무의식은 실제로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잠재의식의 형태로 움직인다.<sup>32)</sup> 또한 융 심리학의 특징은 무의식이 개인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29) 이창일, 「주술과 주역: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적 이해의 역사」, p.195.

30) 이창일, 「주술과 주역: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적 이해의 역사」, p.223.

31) C. G. Jung, 이부영 역,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서울: 집문당, 2003), p.19.

32) C. G. Jung, *The Psychogenesis of Mental Disease* (C.W.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203.

면까지 확장되고 심화된다는 것에 있다. 개인무의식(personal unconscious)이 본질적으로 한때 의식이었던 것이 잊어버리거나 억압되어 의식에서 사라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의 내용은 결코 의식에 머문 적이 없고 그래서 일찍이 한 번도 개인적으로 획득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은 예외 없이 유전 덕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sup>33)</sup>

집단무의식에는 비개인적인 특성을 지닌 제 2의 정신체계가 존재한다.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는 집단무의식은 선재하는 틀들, 즉 원형(archetype)들로 이루어지며, 단지 이차적으로 의식될 수 있고 의식 내용에 뚜렷한 형태를 부여한다.<sup>34)</sup> 대표적인 예로 동물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능이 있다. 본능은 비개인적인 것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행동의 계기를 마련하는 특성을 가진 유전적 요소이다. 즉, 원형은 본능적인 행동의 기본 틀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이 원형의 기능은 문명인의 발달된 의식 상태를 보상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의식이 분화될수록 근원적 상태와 단절될 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sup>36)</sup> 집단무의식의 내용을 나타내는 원형의 다른 표현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특정한 형태들이 신화나 민담이다.<sup>37)</sup>

원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집단무의식의 조절적인 영향력은 개인의 정신 발달, 즉 개성화 과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38)</sup> 이 개성화는 융 심리학의 목적으로, 차별화의 과정을 통한 개체 인격의 발달을 그 목표로 한다.<sup>39)</sup> 그리고 개체 인격의 발달은 윤리적 문제의 참된 핵심 개성화 과정 안에

33)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9-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42. 『원형과 무의식』 융 기본저작집 2권, (서울: 솔 출판사, 2002). p.156 참조.

34)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9-1), p.42. 『원형과 무의식』, p.157 참조.

35)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9-1), p.43. 『원형과 무의식』, p.158 참조.

36)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9-1), p.163. 『원형과 무의식』, p.252 참조.

37)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9-1), p.5. 『원형과 무의식』, p.108 참조.

38) C. G. Jung, *The Symbolic Life* (C.W. 1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486.

서의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인데, 이것은 구원의 드라마 형태로 투사되었고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 체제 안에서는 '세계창조자'(Demiurge)<sup>40)</sup>의 발견과 최상의 신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sup>41)</sup> 이런 대극적인 요소의 융합에는 초월기능이 전제된다. 융 심리학의 초월기능(transcendent function)은 의식적·무의식적 내용의 합일에서 생겨난다. 즉, 의식의 규정성과 정향성에 대한 보상으로 무의식의 본능성과 자발성이 함께 작용한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융의 심리학에서 근본이 되는 개념 중의 하나가 상징(symbol)이다. 상징은 알려지지 않고 인식할 수 없으며, 결코 한정할 수 없고 언어적 개념으로는 표현이 될 수 없지만 존재한다. 또한 상징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지속적인 도전으로 머무른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것이 무수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없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다. 나아가 인간은 꿈이라는 형태로 무의식적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상징을 산출하고 있다.<sup>42)</sup>

꿈을 통해서 인간은 무의식적인 요소인 그림자(shadow)를 만나게 된다. 그림자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혹은 조금 밖에는 모르는 자아의 속성 또는 특질들, 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해 있고, 그래서 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면들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 역시 개인의 사적인 생활 밖에 있는 근원에서 나온 집단적인 요소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sup>43)</sup> 그림자와 더불어 개인에게 어렵고도 미묘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출현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내적(內的)인 상(像)'으로 나타난다. 만일 꿈을 꾸 사람이 남자라면, 그는 그의 무의식의 여성적 요소가 인격화된 상을 발견하고, 여성일 경우에는 남성상이 인격화될 것이다. 융은 그 남성적·여성적 형태들을 아니무스(animus)와 아니

39) C. G. Jung, *Psychological Types* (C.W. 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448.

40) 플라톤과 영지주의에서의 '세계창조자'를 말한다. C. G. Jung, 『인간과 문화』 융 기본저작집 9, (서울: 숲 출판사, 2004), p.270 참조.

41) C. G. Jung, *The Symbolic Life* (C.W.18), p.622.

42)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New York: Ferguson Publishing, 1964), p. 21.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 1995), p.17 참조.

43)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p.168.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p.173 참조.

마(anima)로 불렸다. 아니마는 막연한 여러 느낌과 기분(예견적 육감,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 개인적 사랑의 능력, 자연에 대한 느낌) 그리고 -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것인 - 무의식과의 관계 등과 같은, 남성의 마음 속에 숨은 모든 여성적인 심리적 경향들이 인격화된 것이다.<sup>44)</sup> 이에 비해 아니무스는 색정적인 환상이나 기분의 형태로 나타나는 일은 드물다. 오히려 그것은 곧잘 숨은 '거룩한' 확신의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아니무스는 진취적인 정신, 용기, 진실성 그리고 그 최고의 형태에서 영적인 심오함을 인격화할 수 있다.<sup>45)</sup> 그림자와 아니마 및 아니무스 문제와 진지하게 오랫동안 씨름하며 그것들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심오한 핵심인 자기(自己, Self)를 상징적 형태로 드러낸다. 여성의 꿈에서 이 마음의 중심은 보통 초인적인 여성상 - 무녀(巫女), 마녀(魔女), 대지의 어머니 또는 자연(自然)이나 사랑의 여신(女神) - 으로 인격화된다. 남자의 경우에 그것은 남성적인 성인(成人)에의 인도자(引導者)와 수호자(印度의 구루), 노현자(老賢者), 자연의 정령(精靈) 등으로 나타난다.<sup>46)</sup>

그러므로 자기(Self)는 경험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정신현상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정신적 전체로 인격의 일체성을 표현한다. 경험적으로 자기는 꿈이나 신화나 민담에서 왕과 영웅과 예언자와 구원자 등의 '초인격'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이나 사각형이나 원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이나 십자가의 형태로 드러난다. 자기가 대극의 합일인 대극의 복합체일 때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 음과 양의 상호 작용으로서의 도(道)나 적대적인 형제나 영웅과 그의 적대자(주된 적, 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sup>47)</sup> 따라서 자기는 모든 대극적인 정신 작용을 주관하는 핵심의 위치에 있고 이들을 조율하고 통합한다.

44)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p.177.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p.182 참조.

45)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p.189.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p.195 참조.

46)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p.196.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p.203 참조.

47) C. G. Jung, *Psychological Types* (C.W.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460.

## 2. 융의 '대극의 합일' 이론과 『주역』

융은 리하르트 빌헬름이 『역경』으로 점을 치고 활용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체험이었다. 대단히 만족스럽게 나는 무의식의 심리학에 대한 나의 지식이 나에게 매우 유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8)</sup>

이 언급은 융 심리학과 『주역』의 내용이 내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무의식을 통한 개체 인격의 전체 정신과 『주역』의 점을 통하여 나타난 개체의 주변 상황 및 미래에 대한 예측은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 즉, 무의식과 주역 점을 통해서 개체와 그 개체를 포함한 특정한 사실들이 하나로 연결된다. 여기에는 이런 흐름을 포괄하는 기본 원리가 있고 그 시작에는 개체가 지향하는 정신이 있다. 이런 점에서 융의 무의식과 『주역』은 서로 통한다.

이 양자가 통하는 길을 융의 입장에서는 '동시성 이론'이라고 불렀다. 동시성은 내적 정신과 외부 현실의 '의미 있는 통합'이다. '의미 있는 통합'이란 내적 인간과 외부 상황의 유기체성을 뜻할 수도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안과 밖의 반대되는 이 요소를 대극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융 심리학의 '대극의 합일' 원리와의 연결될 수 있다. 어찌 보면 동시성 원리도 대극의 합일에 대한 하나의 표현 양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융 심리학은 항상 반대되는 요소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변형 과정을 내포한다. 인간의 의식에 대하여 그의 무의식이, 개인의식에 대하여 그림자가, 남성의 의식 안에 여성성이, 여성의 의식 안에 남성성이 있는 대극적인 구조가 융의 심리학이다. 이 양자의 통합은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다. 대극되는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정신은 새로운 의식성을 획득하게 된다.

대극(對極)의 합일(合一)은 남성과 여성의 융합(혼인, 결합, 성교로 불려지는)과 같은 유사성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sup>49)</sup> 『주역』에서 대극의 대표되는

48) C. G. Jung, 『인간과 문화』 융 기본저작집 9권, (서울: 솔 출판사, 2004), p.225.

표현으로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들 수 있다. 건괘와 곤괘는 음양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 둘은 태극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구체화의 시작을 뜻한다. 태극 자체로는 양과 음의 표현인 생성과 소멸, 동과 정, 강과 유, 밝음과 어둠을 온전히 그 전체로 드러낼 수 없다. 또한 양과 음으로 나누어지는 까닭은 이 양자의 결합으로 인한 새롭고 다양한 차원의 창조를 지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역』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괘로, 이어서 64괘로 진전한 것과는 연결이 된다.<sup>50)</sup> 이러한 진전은 음과 양의 생성과 그 둘의 결합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sup>51)</sup>라고 하였듯이, 음양의 구분은 실은 태극의 변화 운동에서 생기는 것이다.<sup>52)</sup> 이 변화 운동은 “육허(六虛: 상하사방)에 두루 흐름”<sup>53)</sup>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은 『주역』 64괘의 전체를 흐르는 움직임인데, 그 시작은 건곤(乾坤)이 앞머리에서 대강을 말하고 나머지의 62괘는 둔(屯 ䷂)·몽(蒙 ䷃)으로 시작하여 기제(既濟 ䷾)·미제(未濟 ䷿)로 끝난다.<sup>54)</sup> 즉, 『주역』 64괘는 전체가 음양의 대립과 조화 그리고 변화의 흐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괘(卦)를 구성하는 여섯 효(爻)에 대한 명칭을 상하(上下) 혹은 초종(初終)의 대응으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초(初)와 상(上)이라는 서로 상응하지 않는 개념으로 명칭을 취하고 있다. 초(初)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고, 상(上)은 최고 높은 자리로

49) C. G. Jung, *Psychology and Alchemy* (C.W. 1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231.

50) 태극이 바로 음의 ‘대극의 합일 원리’를 『주역』과 맞게 할 수 있는 뿌리이다. 왜냐하면 이 태극에서 음양의 모든 관계와 상황이 생성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태극(太極) 자체가 대극(對極)이요, 그 현상이 『주역』 64괘 384효에 두루 편재해 있다. 그리고 『주역』 64괘 384효는 태극의 동질성에서 발생된 것이기에 이 모두는 태극의 내용을 온전히 내포한다. 이러한 태극은 본질적으로 음과 양을 내포하게 된다. 음과 양은 태극에 내재되어 있고, 또한 태극이 변화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리가 표상되어 『주역』 64괘도 순양(純陽)인 건괘(乾卦)와 순음(純陰)인 곤괘(坤卦)를 그 시작으로 삼고 있다.

51) 『주역』 「계사상전」 제11장 : “是故 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吉凶生大業。”

52) 高懷民, 정병석 역, 『주역 철학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2004), p.140.

53) 『주역』 「계사하전」 제8장 : “周流六虛”

54) 高懷民, 정병석 역, 『주역 철학의 이해』, p.141.

공간을 말한다. 이것을 통하여 역도(易道)가 시간·공간 중의 변화 속에 들어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sup>55)</sup> 즉, 『주역』이 관계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두 차원 안에서의 통합으로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융 심리학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정적 융합과 그 요소들의 결합은 의식적 노력의 결실이고 그 작업의 업적이라고 본다. 그 융합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신(神)의 지식과 같은 자기 인식(self-knowledge)으로서의 통찰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진다.<sup>56)</sup>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극적인 요소의 합일은 상징적으로 근본적인 영역인 신(神)과 자기(自己, self)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뜻이다. 『주역』의 음과 양의 결합은 융 심리학의 남성과 여성의 통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양자의 지향점은 ‘생명력 있는 변화’이고 ‘새로운 의식의 획득’에 있다. 이런 통합의 상징은 융 심리학에서 연금술과 연결된다. ‘원형적(原型的)인 신성혼(神聖婚)’(archety pal hierosgamos)의 형태로, 통합은 어머니와 아들 혹은 남매 사이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연금술사 시대에는) 화학적인 혼인이고, 오늘날에는 심리학적으로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결합하는 대극적 상징의 한 예는, 중국 철학에서 양은 남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건조와 밝음 그리고 산의 남쪽 면을 의미하며, 여성적인 음은 습기, 참, 어둠 그리고 산의 북쪽 면을 뜻한다.<sup>57)</sup> 여기에 담긴 뜻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결합은 새로운 내용 즉, 정신의 영역이 확대된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역』이 태극의 원리 아래에서 늘 변화하면서 꽤의 흐름 안에서 생명력을 창조해내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주역』은 “강(양)과 유(음)가 서로 밀쳐서 변화를 낳는다”<sup>58)</sup>고 하였다.

융 심리학의 목표는 개성화에 있다. 즉, 대극적인 내용들의 통합은 ‘자기’(Self)와의 연결에 있다. 그의 심리학은 그림자를 통하여 개인의식의 대극을 인식하고, 자신 안의 반대되는 성적인 대상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알고, 개인의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집단무의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대극의 통합에 해당된다. 융은 이 흐름을 ‘신비로운 결합’(Mysterium Coniunctionis)이라고

55) 高懷民, 정병석 역, 『주역 철학의 이해』, p.146.

56) C. G. Jung,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460.

57) C. G. Jung,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470.

58) 『주역』 「계사상전」 제2장 : “剛柔相推而生變化”

불렀다. ‘신비로운 결합’이 만일 우주의 근본 상태와 세상의 거룩한 무의식성의 회복을 뜻한다면, 우리는 이 신비로부터 흘러나오는 비상한 끌림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고전적인 중국철학의 근본원리 즉, 도 안에서의 음과 양의 결합에 대한 서양의 등가물이다.<sup>59)</sup> 그리고 ‘신비로운 결합’의 완성은 오직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근본적인 ‘단일화된 세계’(Unus Mundus, unitary world)와 하나가 될 때 기대할 수 있다.<sup>60)</sup> 음과 양의 결합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수용과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의 일치와 연계를 지향한다. 대극되는 현실을 인간의 의식이 이를 통합하고 다시 그 뿌리인 도(道)로 귀합하는 과정이 ‘신비로운 결합’이고, 어둡고 밝은 면을 잇고 이루는 것이 『주역』의 선(善)과 성(性)의 도이다.<sup>61)</sup>

#### IV. 『주역』 건괘(乾卦) · 곤괘(坤卦)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 1. 건괘(乾卦 ☰)

건괘를 상징하는 동물은 용(龍)이다. 용은 서양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숨겨진 보물인 황금·양모나 진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악 또는 악마적 경향의 상징이기에<sup>62)</sup>, 창조적으로 통합이 되어야만 하는 심리적인 내용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동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용은 사령(四靈) 중의 하나로, 그 권위와 조화에 초능력을 지닌 상상적 동물이다. 용은 그 권위로써 임금을 나타내었다. 즉, 임금의 얼굴은 용안(龍顏)으로, 임금의 평상은 용상(龍床)으로, 임금의 옷은 곤룡포(袞龍袍)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다.<sup>63)</sup> 용의 우리 고유어로는 ‘미르’인데, 그 어근은 ‘밀’로서 물(水)의 어원과

59) C. G. Jung,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463.

60) C. G. Jung,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465.

61) 『주역』 「계사상전」 제5장 :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 善也, 成之者 性也.”

62) J. Chevalier & A. Gheerbrant,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London: Penguin Books, 1996), p.307.

63) 『한국 문화 상징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2), p.487.

같다. 용은 물의 신으로 못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속에 살며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sup>64)</sup> 물, 특히 깊은 물은 일반적으로 모성적인 특징을 갖는데 소박하게는 ‘자궁’과 연관이 된다.<sup>65)</sup> 그러므로 물을 대표하는 신(神)인 용은 모성에서 탄생해야 할 의식성을 대표하는 동물로 그려진다. 건괘는 하늘을 상징하듯이, 그 과정은 모성(母性)에 잠재되어있던 의식이 그 품을 떠나 하늘로 상징되는 정신의 세계로 승화함을 나타낸다. 『주역』 건괘의 지향점은 의식을 갖춘 정신적 존재로서의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初九 :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sup>66)</sup>

물은 가장 일반적인 무의식의 상징이다.<sup>67)</sup> 물(연못) 속에 있는 용은 아직 의식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여 알 수 없는 단계이다. 즉, 모성적인 역할을 했던 물을 떠나야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용이 아직은 물에 잠겨어 있다. 모성적인 무의식인 물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쓰지 못한다고 하였다.

九二 :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sup>68)</sup>

밭에 있는 용은 물을 일단 벗어난 상태이다. 무의식에 사로잡혔던 단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 밭이란 모성 원형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는 풍요와 결실을 대표하는 장소와 연결된다.<sup>69)</sup> 밭은 창조적인 공간이다.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고 땅의 양분이 올라와 태양 빛의 도움을

64) 『한국 문화 상징 사전』, p.485.

65) C. G. Jung, *Symbols of Transformation* (C.W.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267. 『영웅과 어머니 원형』용 기본저작집 8권, (서울: 숲 출판사, 2006) p.172 참조.

66) 『주역』乾卦 : “初九, 潛龍, 勿用.”

67)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9-1), p.18. 『원형과 무의식』, p.125 참조.

68) 『주역』乾卦 :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69)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9-1), p.81. 『원형과 무의식』, p.202 참조.

받아 결실을 맺는다. 즉, 땅과 태양이 인간의 노력을 매개로 하나가 되어 인간 삶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열매를 제공한다. 이러한 창조적인 공간에 용이 있다. 즉,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자리에 물이라는 무의식에서 벗어난 정신이 있다. 그러므로 이때에 대인을 봄이 이롭다고 한 것이다. 대인은 능히 새롭게 시작하는 의식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Self)의 구체적 현현이라고 할 수 있다.

九三 : “군자가 종일토록 굳건히 하다가, 저녁에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sup>70)</sup>

여기에서는 용의 이미지가 군자(君子)로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상상적 동물의 상태에서 인간의 단계로 변환을 하였다. 동물 형상으로 드러나는 ‘리비도’는 억압된 상태로 있는 동물적 본능을 나타낸다.<sup>71)</sup> 특히 용은 상서로운 능력을 지닌 상상의 동물이므로 이에 준하는 본성을 상징한다. 물에서 뛰어 올라 하늘을 나는 용은 무의식 세계와 정신 영역을 아우르는 능력을 뜻한다. 용은 의식의 획득을 위하여 움직이는 본성을 나타낸다. 의식을 얻은 인간이 중심을 갖고 성실히 의식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終日乾乾’으로 표현하였다. 과정상 아직은 의식을 온전히 획득하지 못한 상태라 ‘夕惕若厲 无咎’라고 하였다. 저녁이 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함은 하루의 결과 앞에서 인간다운 의식을 잃지 않고 돌아봄을 뜻한다. 아직은 의식을 지니고 지내기에 미흡하기에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개체로서의 윤리적 태도는 바른 것이기에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九四 : “혹 뛰어 올랐다가 다시 못에 돌아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sup>72)</sup>

‘或躍在淵’은 마치 심리학의 치료 과정의 훈습(薰習, working through)과

70) 『주역』乾卦 : “九三, 君子 終日乾乾, 夕惕若, 厲, 无咎.”

71) C. G. Jung, *Symbols of Transformation* (C.W.5), p. 179. 『영웅과 어머니 원형』, p.23 참조.

72) 『주역』乾卦 : “九四, 或躍在淵, 无咎.”

도 같은 상황을 말한다. 일단 무의식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하나의 정신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노력이 전제된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영역에서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화하고 경우에 따라 그것을 이론적으로 평가하면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해당한다.<sup>73)</sup> 의식을 갖고 지내기는 하지만 무의식의 타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아니면 무의식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의식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으로서의 퇴행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건괘 「문언전」에서 ‘오르고 내림’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남’으로 표현된 ‘或躍在淵’은 때에 맞추고자 하는 군자의 자세라고 일컫는다.<sup>74)</sup> 즉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함께 타면서 그에 알맞게 적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九五 :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sup>75)</sup>

용의 본분은 하늘을 날며 신비로운 조화를 부리는 것인데, 이 단계에 와서 제 기능을 하게 된다. 구이의 ‘見龍在田’에서 구오의 ‘飛龍在天’의 단계로 옮겨감은 땅에서 하늘로의 이동을 뜻하기도 하지만, 땅과 하늘의 두 세계 모두를 엮어 내는 정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영혼의 치유와 육체의 갱신이라는 형태로 일어난다.<sup>76)</sup> 마치 용이 연금술의 과정을 빌어 자신의 심리학을 개진했듯이, 하늘의 새와 땅의 두꺼비가 하나로 묶여있는 연금술 서적의 그림을 인용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늘의 단계는 물과 땅의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변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구이(九二)에서 구오(九五)로 변함은 정신의 상태가 물질의 상태마저 포함하는 높은 차원의 정신 단계로 이행됨을 말한다.

73) C. G. Jung,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C.W.1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278. : 『인격과 전이』용 기본저작집 3권, (서울: 솔출판사, 2003), p.301 참조.

74) 『주역』乾卦 「문언전」: “九四曰 或躍在淵无咎, 何謂也. 子曰 上下无常, 非爲邪也. 進退无恒, 非離群也. 君子進德修業, 欲及時也. 故 无咎.”

75) 『주역』乾卦 :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76) C. G. Jung, *Psychology and Alchemy* (C.W.12), p.311.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용 기본저작집 6권, (서울: 솔출판사, 2004), p.119 참조.

上九 : “지나치게 높은 용이니,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sup>77)</sup>

지나침은 조화를 벗어난 상태이다. 지나침은 가득 찬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sup>78)</sup> 가득 참은 내용이 들어있어 빈 공간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의 내용물로 치우친 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 일방성(one-sidedness)은 신경증과 무의식적인 갈등과 심리적 무분별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항상 무의식적인 파괴적 경향으로 보상이 된다.<sup>79)</sup> 의식적인 면의 일방성은 창조성을 상실한, 지적(知的)이고 외향적인 태도를 말할 수도 있다. 더구나 건괘 「문언전」에서 상구(上九)에 대하여 “때와 더불어 모두 극함”<sup>80)</sup>이라고 하였듯이, 일방성의 태도를 지님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성 역시 벗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의식의 치우친 관점은 상황의 중심인 때마저도 지나쳐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用九 : “뭇 용을 보되, 머리함이 없으면 길할 것이다.”<sup>81)</sup>

건괘의 육효가 모두 발동하여 여섯 용이 날뛰는 것을 보건대, 잘난 척하지 말고 앞서지 말아야 길하다는 것이다.<sup>82)</sup> 양의 궁극은 음으로의 이행이다. 새로운 생명의 출현은 양이 음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의 본질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생명을 위한 순리이다. 종자를 땅에 뿌릴 때나 양기운이 음으로 들어갈 때, 하늘은 땅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양의 무수(無首)이다.<sup>83)</sup> 자연을 포함한 생명 현상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정신 또한 이와 같아서 ‘대극(對極)의 반전(反轉)’(enantiodromia)<sup>84)</sup>을 통하여 의식의

77) 『주역』乾卦 : “上九, 亢龍, 有悔.”

78) 『주역』乾卦 象傳 : “亢龍有悔, 盈不可久也.”

79) C. G. Jung, *Civilization in Transition* (C.W.1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p.253.

80) 『주역』乾卦「문언전」: “亢龍有悔, 與時偕極.”

81) 『주역』乾卦 : “用九, 見群龍, 無首, 吉.”

82) 김석진, 『대산 주역 강의 1』, (과주: 한길사, 2009), p.164.

83) 김석진, 『대산 주역 강의 1』, p. 164.

84) C. G. Jung,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5), p.375. 『영웅과 어머니 원형』,

발전을 향해간다. ‘대극의 반전’은 ‘반대로 향하여 간다’는 뜻으로, 이는 극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이 의식적인 생활을 지배할 때 이와 대등한 반대의 힘이 생겨나 의식의 통제를 통하여 이를 항상 막는다는 뜻이다.<sup>85)</sup> 용구(用九)는 정신의 의식적 작용을 뜻할 수도 있는데, 극에 달한 의식성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으로 다시 되돌아가 생명력을 받아들인다. 의식 일방적인 태도는 무의식의 여러 요소들인 그림자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등의 대극적인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정신으로 변환하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신의 조화와 균형 작용이 무의식으로부터 만들어져 새로운 창조적인 단계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 또한 건괘에서 음을 대표하는 효사가 바로 이 용구라고 할 수 있다.

## 2. 곤괘(坤卦 ䷁)

곤괘는 괘사(卦辭)에 ‘암말의 바름(牝馬之貞)’으로 표현이 되고,<sup>86)</sup> 효사(爻辭)의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이것은 곤괘가 여성적인 면을 포함하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여성은 상징적으로 대지와 연결이 되고, 이 땅은 바로 모성을 뜻한다. 건괘는 남성적이기에 추상적이고 이론적인데 반하여, 곤괘는 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현실 원리를 담고 있다. 건괘는 이상적인 상황을 내걸고, 곤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규범을 보여준다. 말(馬)은 중국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용과 함께 나타날 때에는 대지(大地)를 상징한다.<sup>87)</sup> 말은 땅과 연결되기에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뜻한다. 하늘은 정신적인 면을 대변하고, 땅은 물질적인 면을 대표한다. 이 정신에 대응하여 물질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현시키려 한다.

初六 :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sup>88)</sup>

p.342 참조.

85) C. G. Jung, *Psychological Types* (C.W.6), p.426.

86) 『주역』坤卦 : “坤, 元, 亨, 利, 牝馬之貞, 君子 有攸往. … ”

87) 진 쿠퍼, 이 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6), p.170.

88) 『주역』坤卦 : “初六, 履霜, 堅氷至.”

건괘와 같이 용으로서 일관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곤괘의 효사는 실제적 삶에서의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정신적 과정과 현실적 물질 사이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고 하였다. 얼음은 심인성(心因性) 우울증으로 '정신 수준의 저하'인 무의식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sup>89)</sup> 용 심리학에서도 초육에 해당하는 이 음(陰)은 어린 시절의 갈등에서 만들어진 콤플렉스 부분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개체의 특성이 될 수도 있다.

六二 : “곧고 모나고 크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sup>90)</sup>

땅의 원리는 '곧고 모나고 큰' 현실적 모양새를 지니고 있어야 하늘의 정신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다. 또한 이 원리들은 본래부터 타고난 성품이기에 배우지 않아도 된다. 건괘는 지성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 정신의 고차원적인 면을 보여주지만, 곤괘는 실제적인 상황을 땅의 모양새로 자연의 있는 그대로 표출한다. 서양의 연금술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양면을 지닌 인간의 전체성과 관련된 수많은 이름과 상징을 생각해냈는데, 이 가운데 중심적인 상징의 하나가 원적법(quadratura circuli), 즉 '원의 정방형화'이다.<sup>91)</sup> 원(圓)은 정신을 상징한다. 플라톤도 정신을 구체(球體)에 건주고 있다. 정사각형(때로는 직사각형까지)은 땅에 뿌리내린 것, 즉 육체와 현실을 상징한다.<sup>92)</sup>

六三 : “빛남을 머금어 바르게 하니, 혹 왕의 일을 좇아서, 이름은 없어도 마침은 있다.”<sup>93)</sup>

음에는 내재적으로 활성화된 양이 들어가 있어, 땅의 유순한 도리를 지키지

89) C. G. Jung,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C.W. 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215. 『인격과 전이』, p.129 참조.

90) 『주역』坤卦 : “六二, 直方大. 不習, 无不利.”

91)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p.246.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서울: 열린책들, 1996), p.379.

92)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p. 249.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p.383.

93) 『주역』坤卦 : “六三, 含章可貞, 或從王事, 无成有終.”

만 하늘의 뜻을 충만히 품고 있다. 이것은 융 심리학에서 남성적 요소인 아니무스가 건강하게 발달한 여성 의식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정신적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외적인 부드러움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을 준다.<sup>94)</sup>

‘或從王事’에서 왕은 상징적으로 정신의 핵인 ‘자기’(Self)를 나타낸다. 왕은 때때로 신, 태양, 하늘, 우주 중심의 화신(化身)으로 또는 하늘과 인간 그리고 땅 사이의 중개자로 이해된다. 융은 왕을 집단 의식의 ‘지혜’로 이해한다. 연금술에서 왕은 ‘원 질료’(Prima Materia)와 연결이 된다.<sup>95)</sup> 중심을 뜻하는 왕을 따른다는 의미는 건(乾)으로 상징되는 정신의 내용을 실행한다는 것이 된다. 실천 요소로서의 곤(坤)은 지성적 핵심의 의도를 실제로 구현한다. 그러기에 ‘无成有終’이라고 했다. 일을 이루는 것도 음의 역할이 아니라, 정신의 핵으로 표상되는 왕인 ‘자기’의 몫으로 넘긴다. 융 심리학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역할은 개체 인간에게 그 궁극인 ‘자기’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지하는 몫을 담당한다.

六四 : “주머니를 매면, 허물이 없으며, 명예로움도 없을 것이다.”<sup>96)</sup>

음은 속이 비어 있으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음의 성질을 허(虛)하다고 하여 무엇이 없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 이는 음의 여성적인 수용(收容)의 면을 드러낸 것이다. 주머니는 풍요와 억제를 상징하는 여성적 상징<sup>97)</sup>이기도 하고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기도 한다. 모두 여성의 본질적인 면을 뜻하는 ‘주머니를 묶는다’고 함은 여성의 근본인 모성적인 면을 극대치하는 상황을 보인다. 여성의 적극적인 성질인 ‘달아걸어 안에 담아두는 모양새’는 상징적으로 심리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외부 대상으로부터 철수하는 내향화(內向化)를 나타낸

94)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p.194.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p.298.

95) Boris Matthews (trans.), *Hereder Dictionary of Symbols*, (Illinois: Chiron Publications, 1993), p.110.

96) 『주역』坤卦 : “六四, 括囊, 无咎, 无譽.”

97) Ad de Vries,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p.44.

다.<sup>98)</sup>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으로 머무르는 여성적 내향화의 지혜를 나타낸다.

六五 : “누런 치마면, 크게 길할 것이다.”<sup>99)</sup>

전통적으로 황색(黃色)은 중앙(中央)의 색을 의미한다. 중앙은 모든 것과 연결이 되고 또한 이들을 대표한다. 황색의 상징적 의미로는 황금, 빛 그리고 태양과 연결이 된다. 금과 같이 황색은 영원성을 뜻한다.<sup>100)</sup> 이어서 치마를 뜻하는 하의(下衣, 裳)로 육오(六五)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를 꾸미는 치마는 여성적인 태도를 지칭할 수 있다. 더욱이 동양의 오색(五色)과 관련하여 황색은 땅의 색이다.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받아들이고 양육시키는 대지는 여성의 근본인 모성과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黃裳’은 여성적인 중용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 옷은 상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sup>101)</sup> 전체적으로 누런 치마는 곤괘의 구조 안에서 한 인간 개체가 여성적인 수용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제안한다.

上六 : “용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sup>102)</sup>

음(陰)이 최고조에 달한 상육(上六)은 음의 성향을 강조하여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반대 영역인 양(陽)이 출현하여 싸우는 동안 풍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피를 땅에 뿌리는 모습으로 삶의 생명력을 드러낸다.<sup>103)</sup> 여기에서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진다. 음의 극에서 양의 상징인 용이 나타난 것이다. 즉, 본래 곤괘에는 양이 없으므로 ‘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용을 말한 것은 땅의

98) C. G. Jung,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5), p.88. 『상징과 리비도』용 기본저작집 7권, (서울: 솔 출판사, 2005), p.138.

99) 『주역』坤卦 : “六五, 黃裳, 元吉.”

100) Boris Mathews (trans.), *Hereder Dictionary of Symbols*, p.219.

101) Ad de Vries,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p.129.

102) 『주역』坤卦 : “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103) Ad de Vries,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p.136.

음이 극성하여 하늘의 양을 부르므로 ‘하늘에서 땅으로 양이 내려온다’는 뜻이다.<sup>104)</sup> 대극의 합일이 음의 최고 상태에서 이루어짐은 상징적으로 그 실현이 구체적인 현실, 즉 새로운 의식 과정 안에서 만들어짐을 뜻한다. 갈등의 결과 현황(玄黃)의 피가 생긴다. 하늘의 빛깔은 검고 땅의 빛깔은 누렇다.<sup>105)</sup>

피는 붉은 색이다. 연금술에서 검은 색은 원질료(原質料, 제1의 물질, prima materia)나 혼돈 혹은 ‘혼돈의 덩어리’(massa confusa)의 속성을 지닌 시초(始初)의 상태이다.<sup>106)</sup> 노란색은 연금술의 초기 네 단계 중 검은색의 처음을 지나고 여명의 단계인 흰색의 과정을 지나서 세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데, 마지막 과정인 태양을 뜻하는 붉은 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다.<sup>107)</sup> ‘현황(玄黃)’의 결과로 나타난 피의 붉은 색은 이렇듯 연금술의 변환의 목적인 새로운 생명력 있는 의식의 출현과 맞물린다. 이것은 생명의 끊임없는 생성작용을 말하는 『주역』의 중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108)</sup> 이는 융 심리학에서 정신의 대극적인 면의 결합을 의미하며, 음과 양의 통합으로 새로운 의식을 낳는 것보다 통한다.

用六 : “영원토록 바르게 함이 이롭다.”<sup>109)</sup>

“지극하도다, 곤의 근원이여! 만물이 바탕하여 생겨난다”<sup>110)</sup>라고 하였다. 곤괘는 물질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이를 대표하는 동물인 말에 대해서 “암말은 땅의 종류니 땅을 다님에 지경이 없다”<sup>111)</sup>라고 하였다. 땅, 말, 물질 그리고 여성적 요소가 곤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진다. 융 심리학에서도 모성(母性)

104) 김석진, 『대산 주역 강의 1』, p.236.

105) 김석진, 『대산 주역 강의 1』, p.237.

106) C. G. Jung, *Psychology and Alchemy* (C.W. 12), p.230.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p.19.

107) C. G. Jung, *Psychology and Alchemy* (C.W. 12), p.232.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p.20.

108) 『주역』 「계사상전」 제5장 : “生生之謂易.”

109) 『주역』 坤卦 : “用六, 利永貞.”

110) 『주역』 坤卦 「象傳」 : “至哉坤元, 萬物資生…”

111) 『주역』 坤卦 「象傳」 : “…牝馬, 地類, 行地无疆…”

인 무의식은 전체성의 상징이 나타나는 곳이다. 특별히 매혹적인 ‘영원한 여성성’(Eternal Feminine)으로 여성은 전체성과 구원을 동경하는 참된 운반자로 드러난다.<sup>112)</sup> 곤괘로 나타나는 여성성은 모든 과정의 근본 바탕이다. 상육에서 건괘의 상징인 용이 싸워 피를 흘려 새로운 생명을 시작했듯이, 용육(用六)은 음과 양의 ‘대극적 합일’의 결과에 대한 출발점이 된다. 건괘(乾卦) 초구 효사에서 물에 잠긴 용으로 시작하듯이, 물은 모성적이고 무의식적인 면을 뜻한다. 곤괘(坤卦)의 마지막 상육의 용은 다시 건괘 초효에서의 물 속의 용으로 이어받는 순환의 과정을 보인다. 그 거룩한 물에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두 개의 원리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탄생과 죽음의 영원한 윤희적인 교차 속에서 창조하는 힘의 진수를 만들어낸다.<sup>113)</sup>

## V. 끝맺는 말

『주역』과 융의 분석심리학은 서로 보상 관계에 있다. 서양의 심층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동양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연결은 동양과 서양의 생활과 정신현상에서 보편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사유적인 방식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근본 바탕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사례가 『주역』과 분석심리학에 통용되는 ‘음양의 대극원리’이다.

이 대극(對極)은 『주역』에 있어서 음양의 근본인 태극(太極)의 드러남이고, 분석심리학에서는 상대적인 정신의 바탕인 자기(Self)의 표현이다. 『주역』은 건괘에서 시작하여 그 짝으로 곤괘가 이를 따른다. 건괘는 모든 효사가 용의 움직임을 통하여 묘사되고 있다. 물에 있던 용이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물과 발을 드나들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등 상승하는 흐름을 탄다. 용이란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신(神)의 상징이고,<sup>114)</sup> 자기(Self)의 지하신적(地下神的)

112) C. G. Jung,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357.

113) C. G. Jung, *Alchemical Studies* (C.W.13), p.79. 『인간과 문화』, p.279.

114)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

인 예고이다.<sup>115)</sup> 또한 용은 연금술사인 돈(Dorn)의 말을 빌어 하늘은 '부패하지 않는 약인 라피스(lapis)<sup>116)</sup>가 발견되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늘은 지상의 중심에서 모든 부분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빛이 함께 모인 모든 요소들이 충만한 곳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나고 부화하는 곳이기 때문이다.<sup>117)</sup>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늘은 인간 안에 숨겨진 천상적인 질료인 '비밀의 진리', '덕의 총체', '보물'이다.<sup>118)</sup> 여기에는 하늘이 천상적(天上的) 정신이 담겨있는 장소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건괘 구오효사에서 용의 승천(昇天)은 정신의 의식화를 위한 상승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곤괘를 대표하는 동물인 말은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리비도' 그 자체로, 동시에 인간에게 예측되는 동물적인 본능을 상징한다.<sup>119)</sup> 말(馬)은 또한 역동적인 운반 기구의 힘을 뜻한다. 따라서 건괘가 아버지와 상승하는 의식과 로고스의 면을 나타낸다면, 곤괘는 어머니와 육체로 회귀하는 본능과 에로스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건괘와 곤괘가 대극적인 면을 상징하듯이, 인간의 정신적 과정도 그 양자의 통합을 지향한다. 건곤괘의 관계 안에서도 대극의 합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곤괘 상육에서 나타나는 '용이 들에서 싸움'은 검고 누런 피를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용들의 피를 땅에 뿌림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하늘인 건괘는 아버지인 남성 원리를, 땅인 곤괘는 어머니인 여성 원리를 뜻한다. 이 둘은 『주역』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 서로 혼용한다. 하늘과 땅은 서로에게 속하고 음과 양은 서로를 낳고

---

p.187.

115) C. G. Jung,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224.

116) 'Lapis Philosophorum'(철학자의 돌)은 연금술 과정에서 원질료로부터 얻는 물질로서, 보석으로 바꿀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다. 여기에는 대극되는 남성과 여성의 분리와 결합 과정이 필요하듯이 양성구유의 성질이 있다. 용은 이 과정을 개성화과정으로 보았다. Boris Mattew (trans.), *The Herder Dictionary of Symbols*, p.149.

117) C. G. Jung, *Aion* (C.W. 9-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p.262.

118) C. G. Jung,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487.

119) C. G. Jung,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5), p.275. 『영웅과 어머니 원형』, p.183 참조.

집어삼키며 사물의 천상적 질서에 조화시킨다.<sup>120)</sup> 『주역』의 지향점이 모든 만물을 생생하게 살리는 것이라면, 용이 말하는 정신의 방향도 새로운 의식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 여기에는 양자 모두 반대되는 내용을 통합하는 ‘대극의 합일’이 전제된다. 융 심리학에서 자기(Self)의 상징은 ‘융합하는’ 의미를 갖는다.<sup>121)</sup> 또한 『주역』 체계에서 태극은 음양의 근본이다.

『주역』은 태극에서 비롯한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 융도 그의 이론적인 큰 틀을 ‘대극적인 요소들의 통합’으로 보았다. 의식에 대해서 무의식, 개인의식에 대해서 그림자, 남성에게 여성성, 여성에게 남성성이 그것들이다. 나아가 융은 이 과정을 상징적으로 접근하여 궁극의 목적은 대극의 조화로운 균형인 ‘개성화 과정’에 있음을 말했다. 그러므로 『주역』의 음과 양 그리고 융의 대극적 요소는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역』을 인류의 정신적인 산물이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투영되었을 것이다. 그 투영된 인간의 마음은 보다 보편적이고 근원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지금 존재하려는 거룩한 그 무엇을 지향한다. 그 지향하는 과정은 바로 ‘대극의 갈등과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구체적인 예가 괘상(卦象)과 괘효사(卦爻辭)로 자신을 드러내는 『주역』이다. 상(image)과 의미(meaning)는 동일하며, 상이 만들어지면 의미가 분명해진다.<sup>122)</sup> 이 의미는 인간의 대극적인 삶 안에서 만들어지고 스스로 살아있다. 진정한 대극(對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교할 수 없다면, 그 둘은 절대로 통합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갖가지의 대립성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항상 통합되려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Nicolaus Cusanus, 1401-1464)는 심지어 신(神) 자신도 ‘대극의 합일’이라고 정의했다.<sup>123)</sup> 건괘와 곤괘로 대표되는 『주역』의 ‘음양의 통합’과 융 심리학에서의 ‘정신적인 대극의 합일’은 근본적인 실체를 삶에 구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제안이고 과제이다. 그 중간에는 이 대극

120) C. G. Jung,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10), p. 498.

121) C. G. Jun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C.W. 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199.

122) C. G. Jun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C.W. 8), p.204.

123) C. G. Jun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C.W. 8), p.207.

을 통합시키는 주체인 인간과 그의 삶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역』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정신적인 면의 발전 단계로 살펴보았다. 또한 『주역』의 태극음양론을 분석심리학의 정신적 내용으로서의 '대극의 합일'과 연결시켜 논하고, 건괘와 곤괘를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았다. 태극음양론과 분석심리학에서의 정신의 대극의 합일은 같은 흐름을 갖고 있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그 구체적인 현상은 태극음양의 중(中)의 개념과 분석심리학의 정신의 조화로 귀결이 된다. 하지만 『주역』은 근본적으로 점을 통해 인간과 주변 상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분석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를 하나의 이론으로 묶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주역』이 인간의 정신적 차원의 결과물이고 융의 심리학도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그 접점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구체적인 예가 융의 동시성 원리이다. 동시성이란 간단히 말해 정신과 물질 즉 현실 세계가 하나로 의미 있게 연결이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역』을 동시성 원리에 입각해서 접근한다면 다른 차원의 동서양 정신의 융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융 심리학에서 대극합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되는 개성화에는 많은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있고, 『주역』 건괘와 곤괘 사이에 나머지 62괘가 펼쳐져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주역』 64괘 전체의 내용을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주역』에 담긴 정신세계를 펼쳐보는 의미와 더불어 인류의 정신과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제를 미제(未濟)로 남기고 논고를 마치고자 한다.

## ❖ 참고 문헌

- 『十三經注疏 周禮』(清·嘉慶二十年重刊宋本, 新文豐出版公司 印行).
- 『周易 附諺解』, 학민문화사, 1998.
- 김교빈, 「馬王堆 帛書의 연구경향 검토 -『주역』, 『노자』, 『황제서』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17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pp.133-167.
- 김석진, 『대산 주역 강의 1』, 서울: 한길사, 2009.
- 김성기, 「歸藏易의 出土와 易學史的 意義」, 『동양철학연구』 제4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6, pp.197-224.
- 金珍根, 「새로운 周易觀 定立을 위한 研究 - 전통 주역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易經』·『易傳』의 분석을 통하여 -」, 『周易의 現代的 照明』, 한국주역학회 편, 범양사 출판부, 1992.
- 김태완, 「백서 『주역』 「요」 편의 분석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17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pp.169-207.
- 신성수, 『현대 주역학개론』, 서울: 대학서림, 2007.
- \_\_\_\_\_, 「『주역』의 관점에서 본 초월과 실존 - 파국과 희망의 변주」, 『인문학 연구』 2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pp. 55-85.
- \_\_\_\_\_, 「卜·筮와 『易』의 關係에 관한 研究」, 『語文研究』 39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pp.389-414.
- 요시무라 미카, 「C.G. 융의 동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은봉, 「同時性和 時間의 問題」, 『宗敎學 研究』 4권, 宗敎學研究會, 1981, pp.23-41.
- \_\_\_\_\_, 「『周易』의 同時性 原理와 理想」, 『宗敎學 研究』 3권, 宗敎學研究會, 1980, pp.3-29.
- \_\_\_\_\_, 「『周易』과 同時性 理論」, 『周易研究』 1권, 韓國周易學會, 1996, pp.115-137.
- 이창일, 「주술과 주역: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적 이해의 역사」, 『서강 인문 논총』 23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p.193-227.
- 정병석, 「聖人之書와 卜筮之書의 사이 - 새로운 出土資料를 통해 본 『周易』의 形成 問題 -」, 『동양철학연구』 제42집, 동양철학연구회, 2005, pp.137-162.
- 지재희 · 이준령 역, 『주례』, 서울: 자유문고, 2002.
- 高懷民, 정병석 역, 『주역 철학의 이해』, 서울: 문예 출판사, 2004.
- \_\_\_\_\_, 송실대 동양철학 연구회 역, 『중국 고대 역학사』, 서울: 송실대 출판부, 1990.

- 鳴浩坤·潘悠·梁東淑 역, 『중국갑골학사』, 서울: 東文選, 2002.
- 寥名春·康學偉·梁韋弦, 심 경호 역,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2009.
- 진 쿠퍼,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2.
- CHEVALIER, J. & A. Gheerbrant,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London: Penguin Books, 1996.
- JUNG, C. G., 이부영 역,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서울: 집문당, 2003.
- \_\_\_\_\_,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 1995.
- \_\_\_\_\_,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서울: 열린 책들, 1996.
- \_\_\_\_\_, 한국 융 연구원 역, 『원형과 무의식』 융 기본저작집 2권, 서울: 솔 출판사, 2002.
- \_\_\_\_\_, 한국 융 연구원 역, 『인격과 전이』 융 기본저작집 3권, 서울: 솔 출판사, 2003.
- \_\_\_\_\_, 한국 융 연구원 역,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융 기본저작집 6권, 서울: 솔 출판사, 2004.
- \_\_\_\_\_, 한국 융 연구원 역, 『영웅과 어머니 원형』 융 기본저작집 8권, 서울: 솔 출판사, 2006.
- \_\_\_\_\_, 한국 융 연구원 역, 『인간과 문화』 융 기본저작집 9권, 서울: 솔 출판사, 2004.
- \_\_\_\_\_, *Man and His Symbols*, New York: Ferguson Publishing, 1964.
- \_\_\_\_\_, *The Psychogenesis of Mental Disease* (C.W. 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Psychological Types* (C.W. 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C.W. 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C.W. 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_\_\_\_\_,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Aion* (C.W. 9-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 \_\_\_\_\_, *Civilization in Transition* (C.W. 1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 \_\_\_\_\_, *Psychology and Alchemy* (C.W. 1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_\_\_\_\_, *Alchemical Studies* (C.W. 1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_\_\_\_\_,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_\_\_\_\_,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C.W. 1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_\_\_\_\_, *The Symbolic Life* (C.W. 1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MATTHEWS, Boris, (trans.) *Hereder Dictionary of Symbols*. Illinois: Chiron Publications, 1993.

VRIES, Ad de.,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Amsterdam: Elsevier Ltd. 2004.

WILHELM, Richard and Cary F. Baynes,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ABSTRACT

Understanding of I-Ching at a Viewpoint of Analytic  
Psychology  
- In a Basis at Ch'ien(乾) and K'un(坤) -

Shin, Sung-soo · Lee, Hyeon-gu

There is the commonness between *I-Ching* of Asian scriptures and Analytic Psychology of C. G. Jung as the conjunction of opposites of yin and yang. *I-Ching* has the base of the Great Absolute(太極) as yin and yang. Jung's psychology has the basic structure of opposite contents of psyche. The former wants to find the proper answer for the situation as fortune book, the latter realization of personal psyche. At this basis to approach *I-Ching* through the Analytic Psychology can be connected with the screening its inner system and structure in the frame of depth psychology. Basically *I-Ching* is the scripture about the good or ill luck, regret and stinginess. All of them are related with the psychology of human beings practically.

*I-Ching* as the main scripture of Asia has the core theme concept of the mean (中). Previously mentioned the good or ill luck, regret and stinginess are included into this as the large view point. The best decision between the given situation and the fortune teller pursues the mean(中) path of both. Jung's psychology also attaches importance to the proper balance among personal conscious, unconscious and his surrounded situations. Goodness is relied on the mean, healthy psyche the harmony with the psychological and real situations of a person. But this balance and mean cannot be achieved without any reason but by the result of the conjunction of opposites.

The opposites are the Ch'ien(乾, the Creative, Heaven) and K'un(坤, the Receptive, Earth) as yin and yang in *I-Ching* and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in Jung's psychology. These can be opened to masculine and feminine, psyche and matter, transcendent and existence and causality and acasual synchronicity. Conjunction of these opposites can develop and create the new conscious and

creative situation. Finally yin and yang from the Great Absolute and conscious and unconscious from Self become the opposites and go through necessary step of separation and sublimation for the creation of new level. In the Great Absolute there are yin and yang and yin the latter contains the cyclic process which can make the former renew. Conjunction of opposite in Jung's psychology also go through the similar process as the Great Absolute of yin and yang.

---

**Key Words**

주역, 태극음양, 분석심리학, 의식과 무의식, 대극의 합일.

I-Ching, the Great Absolute and yin-yang, Analytic Psychology,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Conjunction of opposite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